10.15686/fkl.2023..58.240

‘가부장-아내’의 젠더 수행성과 돌봄노동의 윤리적 고찰

-송경아,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를 중심으로

이진송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이름 없는 남자들: 남성의 ‘아내 노동’
3 부양하는 여자들: 여성의 ‘가부장 실천’
4 성찰적 여성 주체와 상호돌봄의 윤리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을 분석틀로 삼아, 가장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되어 나타나는 작품인 송경아의 소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를 살펴본다. 두 작품에서는 모두 남성이 여성화된 돌봄 노동을 하며 '아내'라는 역할의 젠더를 수행한다. 여성 가장은 남성 아내의 돌봄 노동을 누리며 남성 젠더인 가장을 수행한다. 여성 가장은 역사적으로 실재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장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두 작품의 여성 가장은 남성성을 연행함으로써 가장으로 군림하고, 가정 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러한 젠더 수행성은 아내-가장에 내재된 젠더 규범에 균열을 내고, 아내를 억압하고 가부장이 권위를 가지는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과 젠더 각본을 폭로한다. 또한 일방적인 돌봄노동의 불평등을 깨달은 여성 가장은 돌봄 노동의 윤리성을 고찰하는 성찰적 주체로 거듭난다. 이러한 성찰은 가정의 사적 관계에 제한되지 않으며 확장된다.

국문핵심어: 버틀러, 젠더 수행성, 남성 아내, 여성 가부장, 돌봄노동, 송경아, 박강아름

1 들어가며[1]

2022년 출간된 이슬아의 장편소설 『가녀장의 시대』[2]는 '가부장(家父長)'이라는 단어에서 아비 부(父)자 자리에 딸 녀(女)자를 넣어 만든 '가녀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가정을 통치"한다는 책의 소개처럼, 이슬아 작가는 글쓰기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집안의 가장이다. 가부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아버지는 청소와 딸의 수발을 맡으면

1 본 연구는 다음 칼럼의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이진송, 「뒤바뀌본 성 역할…일상 속 가사노동의 불평등을 다시 생각하다」, 『경향신문』 토요판, 2021.09.18.

2 이슬아, 『가녀장의 시대』, 이야기장수, 2022.

서 “아름답고 재미있는” 중년 남성으로 거듭난다. 어머니 ‘복희’가 가정 내에서 수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복희를 공짜로 누리지 마」라는 목차의 제목대로 ‘노동’으로 명확하게 명시된다. 한편, 코미디언 김숙은 2016년 ‘가모장’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JTBC의 프로그램 〈님과 함께 시즌 2-최고의 사랑〉에서 코미디언 윤정수와 가상 부부로 출연했던 김숙은 “어디 아침부터 남자가 인상을 써”, “여자가 하는 일에 토를 너무 달아.”, “남자가 조신하니 살림 좀 해야지.”라는 가부장적 발언을 일삼았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를 경험하고 ‘상남자’로 상징되는 남성성의 허구성을 간파한 대중은 김숙의 이러한 캐릭터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3] 김숙은 가부장 대신 ‘가모장’,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주인공이자 전사인 퓨리오사를 본딴 ‘퓨리오숙’, 신을 뜻하는 ‘갓(God)’에 김숙의 이름을 합친 ‘갓숙’ 등의 애칭을 얻었다.

두 가지 사례는 소위 ‘가부장’으로 상징되는 ‘남성 가장’의 권위가 일종의 역할극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집안의 경제적·행정적 절차를 책임지는 사람은 성별과 무관하게 가장이 되고, 가부장의 전유물로 여겼던 통치나 지배의 언어를 전략적으로 모방하거나 유희한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단한 가장의 이미지는 언제나 남성이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 시대의 ‘산업일꾼’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으며, ‘누이-여공-식모(때로는 양공주)’의 역사적 계보가 증명하듯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은 늘 존재했다.[4] 그런데도 여성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가장이기보다는 사적 영역을 지키는 가정의 천사로, 주부로, 아내로 표상되었다. 가장의 젠더가 남성이라면, 아내의 젠더는 명백하게 여성이다. 규범적인 젠더 각본에서 남성은

3 관련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 손희정, 「젠더 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2016년, 파퓰러 페미니즘에 대한 소고」, 『여/성이론』 34호, 도서출판여이연, 2016.

4 김은화의 저서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어느 여성 생계부양자 이야기』는 1972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해서 2013년 요양보호사로 은퇴하기까지 40년 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 박영선의 삶을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남성에게만 부여되던 이름, ‘생계부양자’와 ‘가장’이라는 타이틀을 어머니에게 부여하면서 “안팎으로 일해왔지만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신화에 가려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다. -김은화, 『나는 엄마가 먹여 살렸는데: 어느 여성 생계부양자 이야기』, 딸세포 출판사, 2019.

가장을, 여성은 아내를 수행한다. 그러나 앞선 예시처럼, 이것은 유동적이고 변주 가능하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개념은 이러한 성 역할의 전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해석하는 데 적절하다. 버틀러는 젠더란 고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인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화하는 결과로 보았다. 버틀러에게 주체는 행위 주체(agency)로서 법과 규범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자'이다. 그리고 정체성이란 사회적 관습과 관행에 의존하여 문화적으로 구성된 행동 양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다. 버틀러에 따르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는 제도, 문화의 이차적 구성물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광의(廣義)의 젠더에 포함[5]된다. "젠더는 명사도 아니고 자유로이 떠도는 속성도 아니다. 젠더는 수행성, 즉 그럴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젠더는 언제나 행위이지만, 행위에 앞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주체에 의한 행위가 아닌 수행성이다."[6] 따라서 젠더 수행은 남성적 혹은 여성적 "본성"을 표현함으로써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지적, 상호작용적, 미시정치학적인 총체적 활동을 포함[7]하는 것이다. 즉 젠더는 행위들의 정형화된 반복, 즉 젠더 각본에 의해 만들어진다. 젠더 각본은 스타일이나 행동 같은 외적·내적 표현 양식이 젠더에 맞춰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존재가 수행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연극 속의 배역처럼 무대 위에서 임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구성되거나 가면을 쓴다는 의미이다. 연극적 퍼포먼스나 공연의 의미를 갖는 '수행(performance)'이 안정된 주체를 전제에 두고 자유로운 유희나 연극적 자기 재현을 말한다면, 수행적 의미 지칭의 불안정성을 말하는 '수행성'(perpormantivity)"은 좀 더 탈주체적인 의미에서의 반복과정을 말한다.[8] '젠더 수행성'에는 전복력이 내재하여 있다. 담론적 실천을 통해 '여성'이

5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39-40쪽.

6 김지영, 「버틀러와 여성」, 『여성학 연구』 18권 1호, 부산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2008, 127쪽.

7 주디스 로버, 최은정 외 역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일신사, 2005, 246-254쪽.

8 조현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을 중심으로」,

된다는 것은 비록 표면상 안정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정체성은 담론의 권위와 권력의 통제하에 반복적 수행이 만들어낸 환상적, 비본질적 구성물에 불과하며, 이미 그 자체 내에 개입과 재전유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9]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남성적인 것은 남자의 몸을 의미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여자의 몸을 의미할 수 있고, 여자와 여성적인 것은 여자의 몸을 의미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남자의 몸을 의미할 수도 있다."[10]

젠더가 수행이자 연기임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드랙(drag)'이다. 드랙은 '남장 여자'로, 남성의 신체를 가진 연행자가 여성성을 모방하는 것이다. 여성성이 타고나는 본질이 아니라 모방 가능한 연행의 영역이라면, 여성과 드랙은 둘 다 여성성을 모방하는 모방본이다. 드랙은 여성이라는 원본이 아니라 여성성을 모방 수행한다. 여성 역시 긴 머리, 화장, 치마 같은 여성성을 모방 수행함으로써 여성으로 인정받는다. 드랙은 남성의 신체와 여성의 신체,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해체하며 젠더의 모방적 구조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가장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성, 가장의 특성을 모방하거나, 아내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남성성, 아내의 특성을 수행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드랙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가부장 연행은 김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젠더 규범에서 낯선 행위이자 젠더 각본을 교란하는 행위다. 한편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은 여전히 젠더화된 노동이며, 이를 수행하는 것은 곧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라는 낡은 관용어처럼 남성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통용되었다.

본 고는 가장과 아내의 젠더 규범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작품 두 편을 선정하여, 젠더 수행성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송경아의 단편소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우렁각시 설화'를 모티프로 한다. 결혼 적령기의 여성이 홈쇼핑에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우렁총각'을 구매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5년 작품이며 2020년에 재출간되었다.[11] 영화 「박강아름

『영미문학 페미니즘』 9권 2호, 한국 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186쪽.

9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7쪽.

10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2008, 96쪽.

11 본 고에서는 2020년 출간본을 참고 및 인용한다. 송경아,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 『백귀

결혼하다」(2021)는 박강아름 감독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파리로 유학을 떠난 아름은 집안의 경제적, 행정적 절차를 담당하는 가장이다. 아름을 따라 프랑스에 온 남편 성만은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르기에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전업주부가 된 후 주부우울증에 걸린다. 성 역할 전도를 다룬 작품은 시대상을 반영하며 꾸준히 소비[12]되었는데, 두 작품은 그 중에서도 젠더화된 돌봄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결혼과 사적 관계 내의 위계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한 현대에 읽기 맞춤하다.

돌봄노동(care work)은 "우리의 삶과 노동을 매일같이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와 활동의 복합체"[13]이다. 따라서 돌봄노동은 통상적인 가사노동 같은 재생산 노동을 포함하는 더 넓은 활동[14]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족의 생계를 맡은 '가장'에 대한 돌봄과 지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노동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을 통상적인 가사노동까지 포함하는 범주로 사용한다. 또한 돌봄노동이 여성화[15]되어 있으며, 아내라는 직업이 규범적으로 여성 젠더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아내 노동'[16]이라고 명명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2장에서는 '이름 없는 남성들'로 등장하는

야행』, 사계절출판사, 2020. 이후 인용은 쪽수만 표기.

12 대표적인 사례는 1960년대에 흥행했던 심우섭 감독, 구봉서 주연의 「남자 미용사」(1968), 「남자 식모」(1968), 「남자 기생」(1969) 시리즈, 한국에서는 1996년 출간된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히스테리아 역, 황금가지, 1996)이 있다.

13 실비아 페데레치, 성원 역, 『혁명의 영점-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21쪽.

14 "OECD 개발센터는 무급돌봄노동(unpaid care work)을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무급서비스로 정의하면서, 사람을 돌보는 일, 가사노동 및 자발적인 공동체 노동(voluntary community work)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서로 분리된 활동이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된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안숙영,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권 2호, 2018, 5쪽.

15 돌봄노동이 여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돌봄노동이 주로 여성의 일로 여겨진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며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16 애너밸 크랩, 황금진 역, 『아내 가뭄』, 동양북스, 2016.

‘우렁 총각’과 ‘성만’이 어떻게 ‘아내’라는 여성 젠더를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남성의 여성 젠더 수행은 일반적으로 남성성의 상실로 여겨지는데, 여성화된 남성이 겪는 일은 곧 여성성이 어떤 ‘지위’에 놓이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장치이다. 3장에서는 여성 가장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언행을 전유함으로써 위계와 지배를 내면화한 ‘가부장’으로 거듭난 양상을 조명한다. 여성 가장의 남성성 수행과 남성 아내의 여성성 수행은 젠더 규범에 균열을 내며 결혼이라는 제도가 은폐했던 일상 속 불평등과 노동 문제를 가시화한다. 4장에서는 젠더 규범의 전복을 통해 가부장을 ‘체험’한 여성이 성찰적 주체로 거듭나며 돌봄 노동의 윤리를 고찰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을 통해 패러디된 가부장제가 어떻게 원본의 불평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여성이 새로운 관계의 윤리를 성찰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2 이름 없는 남자들: 남성의 ‘아내 노동’

“우렁총각이라면 하나 갖고 싶지. 내가 돌봐야 하는 남편은 싫어.”(9)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는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30대 여성인 ‘나’(이소현)은 결혼제도에 회의적이며 연애와 같은 관계 맺기에도 무심하다. ‘나’가 생각하는 기혼 여성의 삶은 ‘돌봐야 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고단함의 세계이다. 반면 집안일을 해주는 ‘우렁총각’은 욕망의 대상이다. 환상 요소가 가미된 소설 속 세계에는 ‘홈쇼핑’에서 가사노동을 대리해주는 우렁총각이라는 상품을 살 수 있다. ‘나’의 사촌 언니 지영은 십 개월 할부에서 첫 달 할부금을 내주며 ‘나’에게 우렁총각을 선물한다. 허리까지 오는 커다란 유리 수조에 담겨 ‘나’에게 도착한 우렁이는 수조에 있을 때는 평범한 우렁이로 보인다. 주의사항은 우렁각시 설화와 같다. 우렁이가 사람이 되었을 때 모습을 보이지 말 것. 우렁이는 주인이 나가고 30분 후부터 사람이 되어 활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30분 전에 다시 우렁이가 되어 수조에 들어간다.

여성이 ‘홈쇼핑’을 통해 우렁총각을 사들이는 모습은 더는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노동이 아니고, 사적 영역에 있던 가사노동이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자

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여준다. 우렁이를 보면 안 된다는 금기는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비가시화된 사적 노동을 은유한다.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노동을 '그림자 노동'이라고 명명했다. 그림자 노동은 오로지 생산 노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비공식적 부문'으로 존재한다. 가사노동, 청소 노동, 직장 통근, 자기 계발, 스펙 쌓기, 회식 자리 참여 등 경제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무고용, 무급의 활동이 그림자 노동[17]에 속한다. 우렁총각이 행하는 돌봄노동 또한 무급이다. '나'는 매달 삼십만 원의 할부금을 내지만, 그것은 상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제공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금액이며 우렁이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우렁이의 노동은 '숨은 노동'[18]이기도 하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 존재를 감추고 투명인간처럼 행동해야 하는 청소노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나'와 함께 사는 엄마는 어떻게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냐며 펄쩍 뛰지만, 엄마 역시 딸의 뒷바라지까지 하면서 사느라 지친 상태다.[19] 집안 내 노동을 담당해주는 존재는 이제 '엄마'에서 우렁총각으로 이동한다. 우렁이의 뛰어난 살림 실력은 '나'의 일상을 윤택하게 가꾼다.

> 우렁총각은 과연 놀라웠다. 일주일이 지나자 머리카락이나 먼지 하나 없이 집 안이 반들반들해졌다. 재활용 쓰레기도 종이, 병, 캔으로 나뉘어 차곡차곡 묶였고, 냉장고에는 우렁총각이 만들어두는 밑반찬이 가득했다. 우렁이가 무슨 반찬을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해서 이것저것 재료를 사

17 이반 일리치. 노승영 역,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2015.

18 신정임 외, 『숨은 노동 찾기』, 오월의 봄, 2015.

19 "엄마 또래의 육십대 여자들에게 청소나 집안일, 살림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지상명제인 것일까. 하기 싫어하면서도, 서툴면서도, 심지어 분식집 일로 바빠서 할 시간이 없으면서도 집에만 돌아오면 엄마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려고 했다. 그 결과 당연히 일요일이 되면 아고아고 비명을 지르며 찜질방에 가서 하루 종일 누웠다 오곤 했다. 나도 거든다고 거들긴 했지만, 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서툰 솜씨가 엄마 눈에 찰 리 없었다." -송경아, 앞의 책, 2020, 20-21쪽.

> 놓은 엄마 덕분이었다. 우렁총각이 만든 음식은 맵거나 짜지 않고 깔끔하고 정갈했다. 가끔 몇 시에 일어난다고 말해두면 아침을 차려놓고 사라진 적도 있었다. 어떻게 하는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국을 끓여, 우리는 귀찮아서 잘 쓰지 않는 장식장 속의 고급 그릇들을 꺼내 맛깔스럽게 담아놓고 도로 수조로 돌아가 우렁이 모습을 한 채 기어다녔다. 개수대에 설거짓거리를 담아놓고 나갔다 오면 식기 건조대에 말끔히 정리되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빨래는 빨래통에 쌓일 틈 없이 베란다 건조대에서 햇빛에 반짝거리며 펄럭였다. 흰 빨래는 모두 한번씩 삶는 것인지, 얼룩 하나 없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21-22)

"나한테 필요한 건 결혼할 남자가 아니라 우렁총각"이라는 '나'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 '결혼'은 대개 돌봄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통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에게만 그렇다. '나'가 소설 초반, 가사와 육아에 매몰되어 있는 지영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듯이 여성에게 결혼은 돌봄 노동의 '수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애너밸 크랩은 "여성에게도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선언하며 가사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존재를 통칭하여 '아내'라고 부른다. 돌봄노동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내'라는 표현은 이성애 결혼제도 안에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아니라, 가정 내의 크고 작은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내'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아내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은 아내는 끝내주게 '좋은 직업적 자산이라는 점이다."[20] 물론, 아내가 명백하게 젠더화된 직업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공통이다. 돌봄 노동의 상품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노동의 주체는 대부분 여성이다. 돌봄은 여성이 집안에서 수행하는 '사랑의 행위(an act of love)'라는 인식, 즉 돌봄의 제공자는 여성, 돌봄의 수행공간은 집안, 돌봄의 성격은 사이라는 인식이 지배적[21]이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는 이 도식을 비틀어 아내의 자리에 남성인 우렁총

20 에너밸 크랩, 앞의 책, 2016, 30쪽.

21 안숙영, 앞의 글, 2018, 2쪽.

각을 배치한다. 우렁총각의 대사를 보면 '우렁이'는 돌봄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상품으로, "우렁각시"와 "우렁총각"으로 성별이 나뉘어 있다.[22] 그러나 돌봄노동에 최적화된 성품은 '우렁이 특유'의 것으로, 우렁이의 성별과 무관하다. 우렁이는 성별 불문 아내의 젠더, 즉 여성 젠더를 실천한다. 따라서 우렁총각 또한 남성이지만 '여성화'된다. 그는 "강인하고 따스한 팔"이라는 남성적 신체를 가졌으나, "우렁이 특유의 자상한 성격"으로 '나'를 살뜰히 보살핀다. 우렁총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애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커피와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와 슬쩍 들이밀"면서 수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젠더 각본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행위이다. '나'에게 사람일 때의 모습을 들킨 우렁이는 나에게 결혼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돌봄노동을 파업한다. 사회적 지위도 배경도 없는 존재인 우렁이의 결혼 요구를, 순결을 무기 삼아 신분 상승이 수반되는 결혼을 노리는 여성과 나란히 두는 해석[23] 또한 우렁이가 여성적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아내 노동은 사적 노동으로 비가시화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노동 분업에 기초하여 여성을 끊임없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 즉 비(非)노동자로 정의함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다.[24]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아내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노동을 통한 고유한 정체성 구축이 어렵다는 뜻이다. 집 안과 수조 속만이 세계의 전부인 우렁총각은 이름이 없다. 홈쇼핑 상품의 보통명사대로 '우렁총각' 또는 '우렁이'로 불린다.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의 초반, 남편이자 이 집의 '아내'인 성만은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이 집의 식모예요. 밥 차려야 되는데." 이름을 묻자 되묻는다. "식모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렁과 성만은 이름이

22 "모든 우렁이들이 바라는 일이지요. 우렁각시는 총각과, 우렁총각은 처녀와 결혼하는 것."-송경아, 앞의 책, 2020, 33-34쪽.

23 송연주, 「현대소설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양상-「낭만적 사랑과 사회」와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9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2008.

24 안숙영, 앞의 글, 2018, 7쪽.

없는 자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성만은 쉴새 없이 일하지만, 무급 노동자이기에 경제권이 없다. 성만은 장을 보고 난 후 그냥 토마토가 아닌 비싼 체리 토마토를 샀다고 추궁당하고, 커피 한 잔도 허락을 받고 마셔야 하는 처지이다. "자기랑 싸운 다음에 빡쳐가지고, 내가. 씨, 홍청망청 나도 돈 쓸 거야. 그러고 여기 와서 홍청망청 쓴 게 아이스 커피 3유로짜리 마신 거."(성만) 남성 아내로서의 성만은 전업주부가 생계부양자인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듯, 가장에게 순종해야 한다. '홍청망청' 쓴다고 결심해도 자신을 위해서는 '3유로짜리', 한화 4,500원 정도의 커피 한 잔을 마음 졸이며 살 뿐이다. 그래서 자신을 이름 없는 식모라고 자조한다. 성만과 아름 부부에게는 아기도 있는데, 아름은 출산 후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바쁘다. 아름의 뒷바라지와 가사노동, 육아는 성만의 몫이다.

매일 아름의 도시락 두 개를 싸며 '독박육아'를 하던 성만은 마침내 주부우울증에 걸린다. '주부' 우울증인 이유는 성만의 우울이 전업주부의 우울증과 맥락이 같으며, 그가 '아내'이기 때문이다. 성만의 이러한 모습은 전업주부로 일하면서 '집에서 노는 여자'로 취급받다 미쳐가는 '82년생 김지영'[25]과도 비교할 만하다. 주부우울증의 특징은 아내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평가보다 그 자신이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할 때 우울증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26] 그런데 '스스로' 평가하는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사회문화적 구조와 밀접하다. 성만은 언어의 제약으로 집에만 갇혀 있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페르소나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고립감 또한 주부우울증의 요인 중 하나이다. 남성도 주부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은 '아내'나 '주부'처럼 여성화된 직업 혹은 지위에서 여성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수행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남성성과 여성성 형태와 마찬가지로 직업 각본은 신체에 의해 '생동하는' 역동적 과정이다."[27]

영화는 혼자서 집안일을 하거나 아기를 돌보는 성만의 모습을 포착한다. 성

25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26 김경민·정운진·황태영, 「지역사회 거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양상과 우울증 발현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58권 4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9.

27 너멀 퓨워, 김미덕 역, 『공간 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현실문화, 2017, 142쪽.

만이 김치를 담그면서 아기에게 혼잣말처럼 요리법을 설명하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얼굴이 잡히기도 한다. "얼굴은 개인의 내적 정서가 지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침전되어 인간의 내적 인격을 직관할 수 있는 기하학적 장소"[28]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부우울증에 걸린 성만의 무료한 얼굴은 아내라는 여성 젠더에 기재된 성별 규범이 어떻게 수행자를 집어삼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한다. 드랙이 신체와 젠더의 불일치를 통해 신체와 젠더의 무관함·우연성을 증명하듯, 젠더 각본과의 불일치를 생산하는 남성 아내는 낯섦의 효과를 통해 젠더 수행의 지시 규범과 억압을 드러낸다.

3 부양하는 여자들: 여성의 '가부장 실천'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에서 우렁총각을 구매해 돌봄노동을 받는 '나'는 엄밀히 말하면 가정의 생계부양자는 아니다. 엄마가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살아간다. 외삼촌이 하는 카페에 나가는 것만으로 충분한 돈을 벌고, 아쉬울 때는 엄마에게 손 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나'에게 결혼은 자유로운 삶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선택으로 인식된다.[29] '나'가 결혼에 회의적인 이유는 그것이 철저히 여성, 아내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멋진, 아니면 한때 멋졌던 여자들이 생활의 패잔병이 되어 구질구질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보면 고통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생활 근처를 에둘러서, 깔끔한 방관자로 살고 싶었다."(16)

---

28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11쪽.

29 "지금 이대로라면 어영부영 영어공부나 하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언제까지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언제라도 내가 불러내서 놀 수 있고 심심하면 나한테 연락하는 친구들이 이삼십 명은 있었다. 결혼하면 이 친구들 중 상당수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소개팅을 하거나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해도 결혼한 친구들을 보니 결혼은 과연 그 사람 하나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시댁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결혼한 친구들은 모두 시댁 스트레스를 겪고 살았다. 그러니 나는 정말 결혼할 이유가 없었다." -송경아, 앞의 책, 2020, 13쪽.

현대의 결혼은 과거보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은 제도화된 결혼과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불평등한 성 규범을 합리화하고, 결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간관계에 억압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이다.[30] 결혼의 불평등을 간파하고 깊은 관계를 지양하며 살아가던 '나'는 우렁총각을 구매함으로써 유사 결혼 관계에 진입한다. 가정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으나, 우렁이와의 관계에서 경제권을 쥐기에는 충분하다. 나'는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던 '아내를 소유한 가장'의 특권을 경험하며 어머니가 '동거'라고 펄쩍 뛰었던 유사 결혼 생활을 긍정한다.

> "언니, 너무 고마워. 역시 나한테 필요한 건 결혼할 남자가 아니라 우렁총각이었나봐. 앞으로 나갈 할부금이 하나도 안 아깝겠어. 애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나."(22)

'가장'의 위치에 놓인 '나'가 우렁이를 대하는 방식은 다분히 권위적이다.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자꾸 그렇게 굴면 남은 할부 값만 달라고 하고 중고로 팔아버리겠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말을 해."(33), "우렁이가 반항한다면 팔아버릴 터였다."(35) '나'는 사람이 된 우렁이와 마주친 뒤 우렁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우렁이가 뜻을 거스르면 여러 번 '팔아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우렁이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별적 독립체로 인식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 "이거 봐, 난 처녀도 아니야! 연애할 때 그런 건 다 끝냈다고."
> 아마 그렇게 쉽게 사적인 비밀을 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렁이를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34)

'나'의 언행은 현대에서 '가모장'이라는 이름이 붙기에 손색없다. 아내의 젠더는 여성이고 가장의 젠더는 남성이다. 남성 가장은 곧 가정 내 최고 권위자인 '가부

30 송연주, 앞의 글, 2008, 352쪽.

장’의 동의어이기도 하다. ‘나’의 이러한 행동은 가부장의 남성 젠더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젠더는 주어진 것이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하는 것, 즉 동사에 가깝다는 버틀러의 주장을 반영한다면 ‘나’는 남성성을 연기함으로써 가부장으로 구성된다. 핼버스탬은 남성성의 젠더 정체성을 섹스와 이성애로부터 분리하고 행위성을 통한 ‘가면’의 전략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자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핼버스탬의 ‘남자 없는 남성성’은 남성성이라는 것이 곧 남성의 몸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해체하며, 이상적이거나 병리적이거나 특이한 것으로 간주하였던 여성의 남성성을 긍정한다. 핼버스탬의 여자 남성성은 이원 젠더-섹스 체계 속에서 모호하게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성을 “그럴듯하고 확실하며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31]이자 “남성적인 소녀와 여자들이 자기의 남성성을 낙인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과 힘의 원천으로”[32] 만들려는 기획이다. 남성 신체나 남성 가장이 아니라도, 여성 역시 남성성을 소유할 수 있으며 남성성을 모방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나’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우렁이를 팔아버린다. 이러한 ‘나’의 행위를 “우렁총각의 감정을 외면한 채 자신의 위신과 평가에만 급급한 주인공은 기계화된 문명에서 인간적 가치를 잃어가는 존재”[33]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애초에 상품으로 산 우렁이를 상품으로 대하는 것은 캐릭터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감정적 교류가 없었던 상대의 급작스러운 결혼 요구는 ‘인간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마련이다. ‘나’는 결혼에서 돌봄 노동과 편리함을 추구하고 우렁총각은 친밀감과 사랑을 원한다. 결혼으로 대표되는 동반 관계에는 서로 다른 욕망이 투영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여성화된 남성인 우렁총각과 가장인 나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차이나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대신, 우렁총각을 쫓아낸다. 우렁총각은 전통적 의미에서 ‘소박맞은

31 주디스 핼버스탬, 유강은 역,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48쪽.

32 위의 책, 17쪽.

33 박소영, 「「우렁각시」설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43호, 우리문학회, 2014, 481쪽.

아내'처럼 그간의 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축출된다. 가족 구성원이 제 뜻을 거스르는 욕망을 드러냈을 때 처벌하는 것은 가장의 특권이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기는 「박강아름 결혼하다」의 아름도 마찬가지다. 영화 포스터에서 박강아름은 아예 '독불장군'으로 등장한다.



제공: 영화사 진진

박강아름 감독의 전작은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2015)다. 이 영화는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감독이 '연애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다이어트나 여성스러운 옷 입기 등을 시도하고, 주변의 반응을 관찰하는 퍼포먼스 다큐멘터리이다.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가 여성성을 입는 실험이었다면,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남성성 수행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영화의 소재는 원래 성만이 운영하는 일일 팝업 식당인 '외길 식당'과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었다. 그러나 촬영분이 쌓이면서 아름은 자신이 전형적인 '가부장'처럼 굴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보편적인 가장-아내'의 구도에서 역전된 두 사

람의 관계가 중심인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가 만들어졌다.

> "촬영을 시작한 뒤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때 함께했던 프로듀서이자 친구 김문경에게 몇 개월간 찍은 촬영 소스를 보여줬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피드백이 날아왔다. 내가 남편에게 "밥 좀 차려"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난 식모가 아냐"라고 항의하는 순간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 김문경 프로듀서도 나도 프랑스에서 찍힌 촬영본을 보면서 '박강아름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싶은 순간이 더러 있었다. 약간의 충격과 함께, 프랑스에서 남편이 집에 있고 내가 바깥 생활을 하면서 생긴 성 역할의 전복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34]

아름은 '아내'와 경제권을 가졌기에 가장이 될 수 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아름은 외부 세계와 다양하게 관계 맺으며 여러 면에서 성만보다 우위에 서 있다. '외길 식당'에 온 한인 유학생 커플은 아름과 성만의 경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어? 이런 것도 가능한가? 보통은 남자의 유학에 여자가 뒷바라지하러 따라오는데…."라는 대사에서 이 역전된 성별 구도가 얼마나 드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가, 아름을 가장으로 구성한다. 아름은 가장의 젠더인 남성성을 실천하며 가부장으로 거듭난다. 성만이 시장 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물으며, 비용 절감의 이유로 요리를 좋아해서 새로운 식자재 구매를 즐기는 성만의 마음을 무시한다. 집에서 일할 때도 아이의 울음소리에 미동조차 없이 자기 일에 열중한다. 아이가 아플 때조차 잠깐 '돕고' 다시 '바깥일'을 하러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가부장에게는 육아도 집안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아름은 성만의 아내 노동을 지적한다. 부엌의 청소 상태를 지적받은 성만이 "그럼 네가 24시간 해보라"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아름은 대답한다. "나도 도와주잖

34 글 김소미, 사진 백종헌, 「'박강아름 결혼하다' 박강아름 감독, 성 역할이 뒤바뀌면 당연한 것이 이질적으로 취급된다.」, 『씨네 21』, 2021,8. (http://m.cine21.com/news/view/?mag_id=98415)

아.” 이 대사는 전형적인 가부장의 것이다.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은 아내 노동이기에 가부장은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가 최대의 참여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부엌일’로 대표되는 돌봄 노동은 보통 여성의 몫이었기에 이러한 젠더 각본을 뒤집는 발화는 낯섦과 웃음을 유발한다. 물론, 모든 가부장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진 않다. 그러나 가부장이라는 젠더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모방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일종의 ‘지배적 허구(dominant fiction)’로 작동하며, 남성 주체가 믿고 따라야 할 판타지가 된다.[35]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가부장의 본질로 통용된다.

‘나’와 ‘아름’의 가장 연기에는 여성 젠더가 공존한다. ‘나’는 남성의 모습을 한 우렁이를 처음 보고 여성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아름은 남성 가장과 달리 임신과 출산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아내에게 맡기지 못하고 직접 한다. 이러한 이질적인 중첩은 여성 가장의 남성성 수행을 극적으로 부각한다. 오랫동안 여성은 여성 가장으로서, 가정의 실질적인 생계부양자로 살면서 가장으로 인정 받는 데는 실패했다. 이때 방점이 찍히는 것은 ‘여성’ 가장이다. 여성이라는 한계가 가장의 공로를 지운다. 반면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의 ‘나’와 「박강아름 결혼하다」의 아름은 아내 노동의 수혜를 입고, 남성성과 가부장 젠더를 수행함으로써 여성 ‘가장’으로 거듭난다. 가부장의 언행을 연기함으로써 가장의 권위를 획득한다. 여성이지만 부양하고, 여성이지만 억압적이고, 여성이지만 권위적인 두 여성 가장의 형상은 결혼에 내재된 이분법적 성별 규범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성별 불평등을 인지한 여성 주체는 피지배자로 재현되기를 거부하고, 지배자로서 익숙한 권력 구도를 뒤집는다.

이 모습은 일견 통쾌해 보이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만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바꾼다고 해서 관계 내의 불평등이나 노동의 분배 문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자가 아내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해방’됨으로써 해결되는 납작한 의제가 아니다. 돌봄 노동은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을 체험한 여성 주체는 결혼 안의 권력관계

35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15쪽.

와, 자신이 누렸던 아내 노동의 의미를 성찰하기 시작한다.

4 성찰적 여성 주체와 상호돌봄의 윤리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에서 우렁이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잘했다. 제가 아무리 그래봤자 요물이지. 요물 덕을 오래 보면 사람이 뭐가 되겠니." 엄마는 우렁이를 '요물'로 규정하며 지금까지 우렁이로부터 누렸던 아내 노동에 선을 긋는다. "그래봤자 요물"이라는 표현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이물의 접촉을 금기하는 의미가 더 크다. 우렁이를 통해 누렸던 이익은 요물에게 의지했던,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될 일탈로 간주된다. '나'의 입장은 다르다. '나'는 우렁이를 떠나보낸 뒤, 그동안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세상과 관계 맺어왔다며 자신을 되돌아본다.

> "아직 결혼은 아냐. 결혼은 아닌데, 세상과의 관계를 조금 바꿔보긴 해야 할 것 같아. (…)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하는 관계를 계속 피해 다닌다면, 늘 이 모양 이 꼴이 아닐까. 항상 제로상태인 것과,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상태를 이루는 게 정말 같은 것일까. 어쩌면 상처를 주거나 받더라도 생활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39)

> "또 있다우. 난 심지어 우렁이의 원망 어린 눈초리가, 내가 응당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미룬 사람이 받는 업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 내가 먹고 자고 싸면서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보려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걸 남한테 미루려면 돈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오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우렁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오버였지. 하지만 '돈을 냈으니 서비스를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그 못지않은 오버일 수 있는 것 같아서."(39-40)

'나'는 처음 우렁이가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지속해서 자신에게 애정을 드러내던

우렁이에게 감정적 부담감을 느꼈다. 가벼운 인간관계 맺기를 선호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깊이 연루되기를 꺼리던 '나'는 우렁이를 통해 돌봄노동에 내재한 친밀성을 깨닫는다. 우렁이는 집안일만 할 뿐 아니라 술에 취한 '나'에게 꿀물을 타주고, 만취해서 주저앉은 '나'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침대에 눕혀준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이고 물에 젖은 타올로 입가를 닦아주기도 한다. 우렁이의 이러한 행위는 교환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친밀함의 표현이다. 모든 우렁이가 행하는 노동에는 이 정도의 돌봄이 포함되어 있을까? 절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나 노인이 아닌 '나'를 세심하게 챙기는 행위는 '나'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우렁이에게 어느 정도의 돌봄을 요구할 수 있을까? 친밀함을 누리는 처지에서는 무엇을 '응답'해야 할까?

"내가 응당 해야 할 일"은 일상의 크고 작은 수고와 노동이다. "내가 먹고 자고 싸면서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 삶의 몫이다. 이것을 타인에게 맡길 때 나는 돌봄 노동을 받는 수혜자가 되고, 타인을 돌봄 노동의 제공자로 호명한다. 돌봄노동은 필연적으로 친밀성과 밀접한 활동이다. 돌봄을 받는 자들을 위해 노동 주체가 감정노동[36]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접촉과 주의가 수반되는 행위의 특성상 돌봄노동의 경계는 사랑과 친밀성의 영역에서 모호해진다. '나'는 아내 노동을 누리면서, '돈'만 지불하면 충분한지 고찰한다. 이러한 성찰은 타자화되어 있던 우렁이의 감정을 발견하고, 적절한 상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우렁이가 결혼을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돌봄 주체인 우렁이의 감정을 소외시키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순 없었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우렁이의 아내 노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는 '나'는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돌봄 노동과 의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한다.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자신과 관계 맺은 타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각성한 성찰적 주체로 거듭난 것이다. 소설 초반, 기혼 여성의 삶이나 돌봄노동에 대한 멸시를 감추지 못하던 '나'의

36 혹실드의 감정노동 개념은 노동 주체가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을 노동의 현장에서 표현해야 하는 상황과 행위를 말한다.

태도[37]는 마지막에 이르러 변화한다. 여성 주체의 성찰성은 수행에 따라 아내가 될 수도, 가장이 될 수도 있는 정체성의 유동적 위치에서 기인한다.

2020년에 재출간된 소설에서 작가는 명확하게 돌봄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38] 관계와 돌봄노동의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책이 정해지는 사안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반반씩 나눠서 하자'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한 영역이다. 그렇기에 더욱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쏟아져야 한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는 설화를 변용했다는 측면에서 "현대사회를 풍자한 알레고리"[39]이다. 낭만적 사랑의 완결로서의 결혼이나, 스위트홈의 환상이 사라진 시대에 이 소설은 결혼 관계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일상적 노동에 대한 사유를 환기하는 텍스트이다.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고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더 이상 생존을 남성에게 의탁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 결혼의 기능적 요소들은 자신이 가진 경제력으로 해결한다. 이런 풍속은 '우렁각시'가 구전되던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래서 비가시화된 노동을 당연하게 누리고, 지불했으니 그러한 사물화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나'의 반성은 지금까지 결혼 제도 내에서 은폐되었던 노동 착취를 공론화하는 목소리로 읽을 수 있다.

---

37 "3년 전만 해도 홍대 앞 클럽과 신촌의 맥줏집을 함께 들락거렸고, 여름에는 바닷가, 겨울에는 스키장을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누비던 언니가 결혼 후 일산 한구석에 틀어박혀서 어쩌다 볼 때마다 말머리에 '우리 경민 씨가, 우리 경민 씨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결혼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겠던가. 그리고 일 년 반쯤 전, 아이가 나오고 어찌어찌 복직을 못 하고 집 안에 들어앉은 후부터 언니의 입에는 '경민 씨' 대신 '우리 민성이'가 붙어버렸다. 한번은 엄마한테 "지영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더니 아이큐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다." -송경아, 앞의 책, 2020, 10-11쪽.

38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를 쓸 때는 당연히 '우렁각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우렁각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심사가 비틀렸던 것도 기억난다. 대체 남자에게 우렁각시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현실의 여자들이 남자에게 다 해주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돌봄노동(그때는 돌봄노동이라는 말이 대중화되지 않았지만)의 보살핌이 필요한 건 여자 쪽이 아닌가. 그렇지만 돌보는 사람을 보지 않고 돌봄노동만 쏙 빼먹을 수 있는 관계는 비인간적인 관계다. 주인공인 소현이 거기까지 깨닫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다음 돌봄노동과 나를 돌보아주는 모든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글을 끝맺었다. 사실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이다." -송경아, 앞의 책, 2020, 218쪽.

39 박소영, 앞의 글, 2014, 481쪽.

「박강아름 결혼하다」의 아름 역시 '관계적 자율성'[40]을 성찰한다. 자신의 가부장적 면모를 발견한 아름은 영화에서 자신이 변명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차단하고 오롯이 성만과 자신의 일상을 담는다.[41] 전작에서 여성성의 옷을 걸치며 그것을 '가장무도회'라고 명명했던 아름은 이제 남성성의 옷을 입은 채 가부장으로 군림하는 기록에 '결혼하다'라는 동사를 붙인다. 관습적인 여성성을 의식적으로 모방할 때와 달리, 가장의 위치에 놓이자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하대하고 돌봄노동을 등한시하는 가부장의 남성성을 수행하며.

영화에서 아름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결혼했을까? 우리는 왜 결혼했을까?" 처음에 두 사람은 '사랑'으로 결합한다. 성만은 "아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외치면서 프랑스로 따라왔다. 아름은 성만의 헌신적인 아내 노동 덕분에 외국에서의 공부와 일을 해내지만, 두 사람은 자주 돌봄노동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다.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노동과 사랑, 의무와 책임이 분리 불가능하게 뒤섞인 공동생활이다. 결혼은 남성과 여성을 가장과 아내로 나누고, 각자의 신분에 걸맞은 젠더 규범을 부과한다. 이때 사랑은 일방적인 노동착취를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하며 젠더 각본 내에서 특정 젠더에게만 책임과 부담이 부과된다. 아름은 자신의 일상이 성만의 아내 노동에 기대고 있음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성만이 어떻게 가정 내에서 소외되는지 드러내며, 결혼 생활에 따르는 내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담아냈다.

「박강아름 결혼하다」에서 아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

40 관계적 자율성은 인간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적 자아(felational self)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제 3자에 대한 의존, 그리고 그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권력과 지배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개념이다. 특히 그것은 자율성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정의되고, 사회적 힘, 특히 억압에 의해 영향 받는 방식을 강조한다. -김혜경,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권 1호, 한국사회학회, 2017, 각주 14번 재인용.

41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성과 감독의 자기 성찰을 연관지은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성진수, 「동시대 한국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타난 재현 전략: 〈우리는 매일매일〉, 〈박강아름 결혼하다〉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91호, 한국영화학회, 2022.

다. 임신으로 고통받을 때 아름은 성만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전업주부가 가장에게 생계를 의탁한다는 관념은 익숙하지만, 가장의 생활 역시 전업주부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자주 간과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돌봄 노동을 비가시화하고, 개인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로 포착한다. 그러나 유기체이자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상호돌봄과 의존 속에서 살아간다. 장애가 없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권력과 권위를 가진 개인이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것마저 의존의 또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의존적이며 돌봄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아내 노동을 일방적으로 누리는 것은 수혜자의 젠더와 무관하게 부당하다는 사실이, 아름의 가부장 실천을 통해 명료해진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아름과 성만은 아기 보리와 강아지 슈슈를 데리고 덩케르크 해변으로 소풍을 떠난다. 하필 날씨가 궂어 비바람이 몰아친다.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채 비바람에 맞서며 아기차를 밀고 해변으로 간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감행한 간만의 나들이지만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 장면이 롱테이크로 오래오래 이어진다. 편집도, 빨리 감기도, 이어붙이기도 없는 삶과 그럼에도 함께 하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다. 아름은 자신이 왜 결혼했는지에 대한 답을 영화 내에서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을 약속하며 전적으로 희생하던 성만의 아픔을 발견하고,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이 행하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언행을 직시하는 아름의 시선은 꼭 마주 붙은 두 사람의 모습처럼 결국 결혼이란 상호돌봄이 가능한 공동체의 이름 중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런데 기존의 가족 제도나 결혼에 내포된 젠더 각본에서는 상호돌봄이 불가능하다. 아름의 '가(부)장 무도회'는 익숙하기에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던 젠더 각본을 전복하여, 단순히 성 역할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결혼제도 안에서 새로운 배치와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내 가뭄』의 해제를 맡은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렇게 썼다. "'아내 가뭄'은 모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어느 누구도 '아내를 가질' 특권은 없다는 뜻이다."[42] 성 역할을 역전하여 가부장의 지위를 차지하지만, 여성 주체의 문제의식은 여성이 아내를 가지는 통쾌한 반전에 그치지 않는다.

42 애너벨 크랩, 앞의 책, 2016, 13쪽.

모든 여성이 남성 아내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이 돌봄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정 직업이나 역할이 여성화되는 문제는 돌봄 노동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아름이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은, 저평가되어 여성화된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촉구한다. 친밀성이 교차하는 돌봄 노동은 명료하게 금전화하기 어렵고, 동시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연화(모성이나 사랑)되었다. 젠더 수행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경험한 여성 주체는 비단 아내라는 존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모든 노동자 및 상호돌봄의 윤리를 성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5 나가며

지금까지 버틀러의 젠더 수행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가장과 아내의 역할이 전도되어 나타나는 작품인 소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영화 「박강아름 결혼하다」를 살펴보았다. 두 작품에서는 모두 남성이 여성-아내로 젠더화된 돌봄 노동을 수행한다. 여성화된 남성 아내는 남성 신체의 소유자임에도 공적인 지위나 젠더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무력한 존재로 포착된다. 남성 아내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주부우울증에 걸린다. 극적으로 낯설게 구성되는 남성 아내의 현실은 가정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오랫동안 하찮고 비공식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던 여성의 은유 그 자체이다. 한편 여성 가장은 남성 아내의 돌봄 노동을 누리며,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가부장을 연행한다. 여성 가장은 역사적으로 실재했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가장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박강아름 결혼하다」의 여성 가장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모방 실천함으로써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권위를 획득한다.

남성 아내의 아내 노동이나 여성 가장의 가부장 실천은 마치 드랙처럼 신체와 젠더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버틀러가 주장하듯 남성성이나 여성성은 고유한 본질이나 불변의 정체성이 아니며, 수행과 실천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 여성 가장은 이러한 경험을 단순히 흥미로운 성별 역전극에 국한하지 않고, 아내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가부장제 안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 가장이라는 지위와 남성

성의 수행이 어떻게 위계와 억압을 생산하는지 돌아본다. 또한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일상의 노동을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타인에게 떠넘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와 자신이 관계 맺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찰한다. 아내 노동의 주체가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인식한 여성 가장은 상호돌봄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성찰적 주체로 거듭난다.

결혼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불평등은 낭만적 사랑의 환상으로 가릴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다. 두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 돌봄 노동의 제공자와 수혜자의 성별이 바뀌는 단순한 전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성 개인이 '각성'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거부하면 해방된다는 것도 더는 통하지 않는 낙관이다. 돌봄 노동을 축으로 작동하는 권력과 노동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친밀성과 착취는 얼마나 가깝고 또 모호하게 뒤엉켜 있는가? 젠더화되어 있는 아내와 가장의 젠더 규범, 위계를 해체하고 상호돌봄이 가능한 새로운 공생의 관계를 상상해야 할 때이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박강아름 결혼하다」는 이러한 동시대인들의 고민에 응답하는 뜨거운 텍스트이다. 본 연구는 남성 아내와 여성 가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가정 내에서 젠더의 모방과 연행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분석하고 성찰적 여성 주체를 통해 돌봄 노동의 윤리적 차원을 살펴본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송경아,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 『백귀야행』, 사계절출판사, 2020.

박강아름, 「박강아름 결혼하다」, 2021.

단행본

국내서적

김은화, 『나는 엄마가 먹여살렸는데: 어느 여성 생계 부양자 이야기』, 딸세포 출판사, 2019.

신정임·최규화·정윤영·송기역, 『숨은 노동 찾기』, 오월의 봄, 2015.

이슬아, 『가녀장의 시대』, 이야기장수, 2022.

번역서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11쪽.

너멀 퓨워, 김미덕 역, 『공간 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현실문화, 2017, 142쪽.

실비아 페데레치, 성원 역, 『혁명의 영점-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 갈무리, 2013.

애너밸 크랩, 황금진 역, 『아내 가뭄』, 동양북스, 2016, 30쪽.

이반 일리치, 노승영 역,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2015.

주디스 로버, 『젠더 불평등: 페미니즘 이론과 정책』, 최은정 외 역, 일신사, 2005, 246-254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39-40쪽, 96쪽.

주디스 핼버스탬, 유강은 역, 『여성의 남성성』, 이매진, 2015, 17쪽, 48쪽.

논문

김경민·정운진·황태영, 「지역사회 거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양상과 우울증 발현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58권 4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9, 322-330쪽.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 의식 연구: 수행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김지영, 「버틀러와 여성」, 『여성학연구』 18권 1호, 부산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2008, 121-140쪽.

김혜경,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권 1호, 한국사회학회, 2017, 155-198쪽.

박소영, 「「우렁각시」 설화의 현대적 변용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43호, 우리문학회, 2014, 459-491쪽.

성진수, 「동시대 한국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타난 재현 전략: 〈우리는

매일매일〉, 〈박강아름 결혼하다〉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91호, 한국영화학회, 2022, 235-262쪽.
손희정, 「젠더 戰과 퓨리오-숙들의 탄생: 2016년, 파퓰러 페미니즘에 대한 소고」, 『여/성이론』 34호, 도서출판여이연, 2016, 35-59쪽.
송연주, 「현대소설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양상-「낭만적 사랑과 사회」와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9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8, 339-363쪽.
안숙영, 「돌봄노동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여성학』 34권 2호, 2018, 1-32쪽.
조현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정체성 이론-패러디, 수행성, 복종, 우울증을 중심으로」, 『영미문학 페미니즘』 9권 2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179-207쪽.
허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남성 젠더 수행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Abstrat

An Ethical Assessment of the Gender Performativity of the “Male Patriarch/Wife” Relationship and Care Work

Lee Jinsong

Using Butler’s gender performativity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Song Kyung-ah’s novel The Story of My Bachelor and the film Areum Married, in which the roles of the male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wife are reversed. In both works, men perform the gender role of the “wife,” and the female head of the household performs the gender role of the male. This performance of masculinity appears as the words and actions of an authoritative and hierarchical patriarch. This gender performativity disrupts the gender norms inheren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wife and male patriarch and reveal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patriarchy. The female head of household is reborn as a reflective subject who considers the ethics of care work.

Key words: Butler, Gender performativity, care work, Kyungah Song, Park Kang-A-Reum.

투고일 / 2023. 02. 28.
심사완료일 / 2023. 04. 04.
게재확정일 / 2023. 04. 11.